

세상의 나라들이 어렵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제3세계는 제3세계대로 어렵다. 선교지에 가보면 비참한 나라들의 현실을 본다(경제, 의료, 교육)

본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원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후대를 낳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창3장에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타락과 분쟁과 고통이 가득한 인간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최악의 시작이 창11장의 바벨탑 시대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게 만든 곳이 바벨탑이다. 그때 메소포타미아라는 인류 최초의 나라, 제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만들고, 서로 침략하고 전쟁함으로 나라를 키운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왜 나라 얘기를 할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라에 속해 있고, 나라의 영향과 지배를 받고 산다.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1.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당연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축복이요 응답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가 있다. “백성, 땅,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1)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골1:13-14, 뱀전2:9)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 운명, 지옥 권세에서 해방 받은 것이다. 더 이상 나와 내 인생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불행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영원히 망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빌3:20),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그때 실패하고 고통하던 내가 치유되고 살아난다(눅17:21).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롬14:17). 그렇게도 나를 힘들게 하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마12:28)

3)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일까? 원래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스렸고, 우리에게 맡기셨다(창1:28)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사단이 왕 노릇 하고(요14:30), 세상 모든 권세를 움직여 어둠을 만들고 있다(엡6:12)

그래서 이 땅에 끝없는 전쟁, 고통, 저주, 재앙이 계속 되고 있고, 우리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나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전도는 이런 내 주변의 사람을 살려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전 세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지역, 민족,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2.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까?

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내 안에, 내 가정과 교회에, 내 학교와 직장, 산업에)

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나도 내 자신(마음, 생각, 감정, 몸)이 다스려지지 않아 고통이 많다.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 것이다(요14:16-18). 그 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된다.

그때 갈5:22-23의 성령 충만의 열매(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참음, 온유, 절제)가 나온다.

마귀도 24시로 역사하니 이 축복을 24시로 기도하며 누려야 내가 살고, 후대도 살린다. 그대로 영향을 준다.

② 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짝이고,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함께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축복을 모르고 못 깨달아서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늘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가정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것이 흑암 세력들의 목표다.

③ 이제 내 학교,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거기에 중요한 응답이 오고, 문이 열린다.

내 학업과 학교 안에서의 만남에도 증거가 오고, 하는 모든 일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2)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다.

① 일어나서,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 집중의 시간을 못 누리면 한 숨 쉬고, 스트레스 받을 일 밖에 없다(우울증, 질병)

②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가지 집중을 하는 것이다.

잠시라도 나를 제한하고(제한적 집중),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선택적 집중), 하나님과 소통해보라(원네스 집중)

3)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7,7,7의 기도이다.

24시로,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해보라는 것이다. 각인, 뿌리, 체질이 될 때까지 주보를 보고 해도 된다.

① 7여정의 기도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사43:1).

내 영적 정체성,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썬맛의 길, 9가지 소통과 흐름, 전도자의 삶, 강단의 축복

② 7망대의 기도가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요14:12-14)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시공간 초월의 역사, 3시대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는 영적 승리, 237나라를 살릴 오력, 미래를 미리 보고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 세가지 딸을 회복하는 축복이다.

③ 7이정표의 기도가 무엇인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살린 축복이다.

3.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내 인생 속에 마귀의 일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성령의 역사)

1) 반드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실 수 밖에 없는 세가지 시스템이 세팅이 된다.

플랫폼(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일들이 내 주변으로 모인다). 파수 망대(내 주변의 영적 흐름이 바뀐다)

안테나(내 후대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전달된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다)

2)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그것이 세가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뀐다.

문제는 오직의 답을 찾는 기회이다. 갈등은 나를 치유받고 바꾸어 세상 살릴 그릇으로 준비되는 기회이다.

위기는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이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가 이 응답의 증인으로 살다가기를 원하신다.

3)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헌신, 수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작품이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다(25).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한 보상과 면류관이 되게 하신다(영원의 응답)

결론-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아니다. 문제, 고통, 재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한다